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11, 편집 비평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양식 비평에 대해 논의했고, 신약의 양식 비평, 특히 복음 연구에서 양식 비평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 연구에 등장하는 비평양식이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거나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선언문이나 속담이나 그와 유사한 형태를 식별하고 라벨을 붙이는 것입니다.

둘째, 삶의 배경인 Sitz im Leben(독일 용어를 사용하면)을 분리하거나 분석합니다. 이는 이 형식을 발생시켰을 수 있는 초대 교회의 삶의 배경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초기 교회에서 신앙을 옹호하는 것이 필요했던 상황이나 상황이나 변증적인 상황에서 기적 이야기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배경, 즉 이 형식을 낳은 초대교회의 배경을 분리하거나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그 형식이 실제로 성경 본문에 포함되기 이전의 구두 전승을 검토한다.

복음서 자체의 형식에 대한 또 다른 예와 어떤 면에서 형식 비평에 있어 상당히 유익한 한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몇 가지 점만 말씀드리자면, 예수의 비유는 형식비평,

특히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유익한 연구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약성서 형식비평의 가장 유익한 부분은 첫 번째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텍스트에서 형식 자체를 식별하고 해당 형식에 레이블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비유는 형식비평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특히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유익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비유가 가르치는 한 가지 주요 요점에 초점을 맞추거나 찾아야 한다는 접근 방식이 비유를 지배했습니다.

비유는 직유나 은유로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단 하나의 요점만을 전달하는 이야기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자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실 때 어떤 요점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흥미로운 점은 이 접근법이 일반적으로 독일 학자인 Adolf Jülicher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19세기와 20세기까지 비유가 자주 우화화되었던 19세기와 20세기까지 비유가 취급되는 방식에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몇 회기 전에 성 어거스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룬 극단적인 예를 읽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유의 거의 모든 것 뒤에 우화적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해석에 대한 반응으로 독일 학자 아돌프 율리허(Adolf Jülicher)는 불행하게도 그의 작품이 아직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지만 어떤 비유도 하나의 요점만을 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해석서나

비유를 다루는 성경 해석학에 관한 책에서 이 조언을 따르고 해석자의 목표는 역사적 맥락과 예수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무엇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비유가 가르치려고 하는 한 가지 주요 요점.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가 논의해 온 고전적 형식비평 유형의 결과라기보다는 최근 비유의 형식이 재검토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비유가 제한된 우화로 분류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즉, 비유는 주요 특징이나 주인공만이 두 번째 수준의 의미, 즉 우화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우화이다. 모든 것이 아닌.

즉, 대부분의 세부 사항은 스토리를 작동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두 번째 수준의 의미, 즉 우화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예수께서 비유를 해석하실 때 비유를 대하신 방식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왕국이다. 씨앗이 떨어지는 다양한 근거는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그렇게 대하신 것 같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우화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의 요점과 주인공은 더 깊은 의미, 즉 우화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문맥과 예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 반드시 후기 신약성경의 가르침 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도래하여 가져오는 구원사의 단계에 적합한 의미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를 들어, 비유를 분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보는 것이었고 우리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세 가지 주요 유형에 따라 비유를 보는 것입니다. 비유의 한 종류는 모나드 비유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한 명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점이 하나뿐인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겨자씨 비유, 잘 알려진 비유, 겨자씨 비유, 그 비유의 주요 특징은 겨자씨입니다. 그것이 요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화적인 수준의 의미를 얻는 기능이며 비유의 다른 모든 것은 이야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는 다른 유형의 비유는 이중 비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 내의 두 주요 인물이나 인물 또는 특징에 해당하는 두 가지 주요 요점이 있는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여자와 재판관 에 대해 말씀하시는 비유 , 재판장에게 가서 기본적으로 재판관을 괴롭히는 여자가 때까지 입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응답하고 그녀가 요청한 것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비유의 두 가지 주요 특징, 즉 우화적 의미를 받게 될 두 주인공입니다.

비유의 다른 모든 것은 비유가 작동하도록 색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모를 높이기 위해 비유의 마지막 유형은 삼중 비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벨이 암시하듯이 이 비유에는 세 가지 주요 요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예는 주인과 그 주인 아래 선한 종과 악한 종이 있고, 주인은 그 두 종과 상호 작용하는 비유일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하인이나 나쁜 하인이 한 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하인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고 나쁜 하인이 한 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유 속의 세 주인공에 해당하는 세 가지 주요 요점 또는 세 가지 주요 우화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밖의 모든 것은 단지 색깔을 위해서이고 단지 비유와 이야기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몇 번 언급한 비유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상속 재산, 즉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유산을 줍니다. 아들은 나가서 온갖 방탕한 생활에 돈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아들은 아니더라도 종이라도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인사하고 안아주고, 데리고 와서 아들을 위해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열어준다고 하더군요.

이 비유는 흥미롭게도 또 다른 인물, 즉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 대답하고 질문하고 아버지가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아들을 대하기 때문에 질투심으로 반응하는 큰 아들로 끝납니다. 그리고 비유는 거기서 끝납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삼극 비유의 예입니다. 즉, 이 비유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탕자, 이른바 탕자, 작은 아들, 아버지, 큰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보는 이 방법에는 비유에 나오는 세 인물 각각과 관련된 우화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의미이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역사와 맥락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분명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 세션에서 비유에 나오는 역사적 참고 사항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요점은 하나님이 자신을 모욕한 죄인을 받아줄 만큼 자신을 낮추셨을 때 자신을 낮추시고 심지어 행동하시고 자신의 존엄성을 기꺼이 위험에 빠뜨리셨다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 어린 아들, 소위 탕자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죄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아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바리새인들을 대표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이 비유를 그 맥락에 넣는 것입니다. 15장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아들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 이어 아버지를 자기와 같이 행하고

나가서 상속 재산과 온갖 방탕한 생활을 다 망쳐 놓는 것을 시기하여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를 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큰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베푸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바리새인을 분명히

상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아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질투로 반응하는 사람이나 기쁨과 찬양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꽤 흥미롭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큰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비유는 당신을 제3의 인물과 연결되게 만듭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축하 파티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다시 들판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공급이나 아버지의 초대를 거부하고 무시했습니까? 어쩌면 이 비유는 의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조사하고 다루라고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푸실 때 기뻐하며 응답하라고 하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모든 것, 살진 송아지, 반지, 자색 옷, 돼지들, 그리고 어린 아들이 자기 자신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돼지들에게 먹인 음식이 너무 절박한 상황에 있어서 원했습니다. 돼지가 먹던 음식, 유산, 야생 생활 등 대부분은 단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것일 뿐 우화적인 수준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비평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학의 종류를 이해함으로써 비유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유가 제한된 우화인 경우, 즉 이야기의 주요 인물, 주인공이 우화적인 내용을 받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경우에 의도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맥과 역사적 상황,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세 명의 주인공이나 한 명의 주인공, 또는 두 명의 주인공과 관련된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비유인지에 따라 주인공. 복음서 밖에서도 양식 비평이 복음서 문헌

자체만큼 많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신약의 다른 부분에는 양식 비평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의 편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 중 하나인 바울의 많은 부분은 신약의 다른 서신에서도 볼 수 있는데, 편지의 권고나 권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덕의 목록.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니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는 일련의 사랑, 이것, 저것, 저것, 또는 벗거나 성적 부도덕을 피하는 등을 나열할 것입니다. ., 등등, 그는 피해야 할 것들의 목록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전적인 예는 갈라디아서 5장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피해야 할 악덕의 목록을 간단히 제시합니다.

육체의 일은 이것이니 수효를 열거하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을 말하여 열거하시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리스-로마 문학의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덕 및 미덕 목록이라는 공통 형식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목록은 특히 공동체에 대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야 할 악덕과 피해야 할 미덕을 간단히 나열한 것입니다. 포옹.

Paul은 분명히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를 조정하지만 매우 초기 형식에 의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형식은 바울 서신 외에 베드로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4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이 두 부분 모두에서 노예와 주인이 있으며, 베드로전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바울의 지시는 어떤 형태, 즉 일부 사람들이 가구 코드 또는 가구 코드라고 표시한 1세기에 잘 알려진 형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전형적인 그리스-로마 가정 내 주요 인물 간의 적절한 관계를 규정한 그리스-로마 문학에서 발견되는 초기 형태일 수 있습니다. -사회에 안정을 가져온 로마사회. 따라서 이 형식은 전형적인 가족의 세 가지 주요 단위, 즉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그리고 노예와 주인 사이의 관계를 상호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이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행동의 형식과 기초를 사용하는 방식은 그리스-로마 세계와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바울이 이 형식을 선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바울이 단지 이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단지 기독교인 가정을 가르치기 위해 이 형식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기독교가 전복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형식을 사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로마 사회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관계를 붕괴시키거나 뒤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의 기초와 그의 지시는 어떤 면에서 매우 독특하고 그

형식의 사용과 그 관계가 그리스-로마 문학에서 이루어졌을 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한 사실은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는 다소 독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 비평은 가치 있는 역사적 접근 방식이며, 첫째로 형식 비평의 더 사변적인 결론과 때로는 훨씬 더 파괴적인 결론을 피하고, 둘째로 형식 비평의 분류에 초점을 맞춘다면 귀중한 해석학적, 해석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와 기능. 그렇게 할 때, 양식비평은 여전히 성경해석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시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다음 비평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평은 모두 더 넓은 범위의 역사 비평에 속하며, 그것이 바로 편집 비평입니다. 편집 비평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형식 비평과 소스 비평을 모두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형식과 출처 비평은 텍스트, 즉 기록된 텍스트 뒤에 가서 현재 기록된 텍스트에 나타나는 구전 형식이나 기록된 출처를 밝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형식과 자료비평은 텍스트 뒤에 가서 형식과 자료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이제 편집 비평은 더 나아가 비록 그것이 출처와 형식 비평에 기초하고 있고 실제로는 형식과 출처 비평을 가정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편집 비평은 사용된 출처가 있고 구약성서 저자나 신약성서 저자가 활용한 개별

형식이 있다고 가정하지만 더 나아가 저자가 어떻게 이러한 출처와 형식을 결합하여 완성된 작품으로 가져왔는지 묻습니다. 텍스트? 그리고 이것은 저자의 의도, 특히 저자의 신학적 의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편집비평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편집비평은 저자가 자신의 자료를 정리하고 편집한 방식, 또는 자신의 자료를 정리하고 편집한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특히 같은 주제에 대해 글을 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저자의 신학적 의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작가를 조사함으로써, 특히 같은 주제에 대해 글을 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저자가 자신의 자료를 배열하고 그의 출처를 편집하고 활용한 방식을 조사함으로써 편집 비평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저자의 신학적 의도? 다시 말하지만, 더 광범위하게, 내가 말했듯이 단순히 동일한 주제에 대해 글을 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여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함으로써 간단히 편집 비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매우 기본적인 종류의 조잡한 형태의 편집 비평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기록과 같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왜 그것들이 다른가? 마태복음에는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 이야기가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며, 누가는 그 대신 목자들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유형의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편집 비평의 초기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편집비평은 저자가 최종 텍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배열하고 편집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텍스트를 집필하는 저자의 신학적 의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따라서 편집비평은 두 가지를 가정합니다.

우선 이 텍스트를 작성한 저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는 저자가 최종 문서에서 채택하여 정리하고 편집한 출처와 형식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시 한 번 구약과 신약의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제 예는 신약에 좀 더 비중을 두지만 구약의 예를 들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것인데, 다시 한 번 제 목적은 이것에 대해 철저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 비평이 어떤 종류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역대상 17장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을 세우실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은 그의 아들이 되시며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며 항상 다윗의 보좌에 앉을 누군가가 될 것입니다. 언약이 된 공식은 나중에 구약과 신약에서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도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동일한 언약 공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에 대한 동일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언어를 기록한 두 명의 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저자는 그 설명을 어떻게 활용했으며 그것이 그들의 신학적 의도를 나타내는 데 어떻게 기능합니까? 그러므로 사무엘하의 저자가 다윗 언약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한 예언의 기록을 기록한 방식과 역대상 17장의 저자가 같은 말을 기록한 방식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살펴보면, 그것을 통합하고 편집하여 자신들의 글에 포함시켰으니 저자의 신학적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사무엘하 7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문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 곧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가 잘못하면 내가 그를 벌할 것이라고 그가 말하는 왕좌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흥미로운 문구 중 하나이지만 역대상 17장에는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편집 비평은 신학적 의도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작가가 이렇게 바뀌었나요? 역대상 17장의 저자가 역대상 17장이 그렇다고 가정하거나 사무엘하가 역대상 17장의 출처라고 가정한다면 왜 저자는 이 내용을 삭제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변화는 역대상 17장 저자의 신학적 의도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역대상 저자가 특정 상황을 언급하면서 다윗 왕조를 가능한 한 가장 긍정적인 시각으로 묘사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존재의 전성기, 이스라엘 존재의 황금 시대가 20세기 말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 왕조.

그래서 일부 사람들 에 따르면 이 문구는 의도적으로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본문을 보고, 저자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것이 저자의 신학적 의도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약성경에서도 복음서가 편집 비평 장면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편집비평의 논리적으로 유익한 분야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복음서 사이에는 문학적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할 때 그들이 출처를 편집한 방식, 이야기를 전달한 방식, 그리고 그것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학적 의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매우 흥미로운 예 중 하나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을 비교해 보면 이 세 가지 모두 본문이었는데, 이 세 본문 모두 종려주일과 관련된 사건, 즉 예수의 강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세 가지 모두 해당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비교해 보면 흥미롭습니다. Matthew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러티브에서 동일한 순서로 발생하며 동일한 배우 및 참가자 등 매우 유사한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 계정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면 마태는 가장 흥미로운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크와 루크의 차이점과 그것이 그들의 의도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튜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없는 두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마태가 언급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기념하는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어린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마가와 누가와는 달리 당나귀와 망아지를 모두 언급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나귀 새끼만을 언급하는 반면, 예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마태는 당나귀와 망아지를 모두 언급합니다. 둘째, 마태는 또한 누가나 마가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 스가랴 9장과 9절의 구약성경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서 마태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여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온유하여 나귀를 타고 네게 임하시나니 곧 당나귀를 가득 실었느니라 하라. 스가랴 9장 9절은 두 마리의 동물, 즉 당나귀와 망아지의 발생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누가와 마가와는 달리 마태는 당나귀와 새끼를 모두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크와 마가가 당나귀가 있는지 몰랐거나 당나귀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매튜가 이것을 꾸며낸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이 설명을 구약의 예언과

일치시키고 보여주기 위해 당나귀와 망아지를 강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구약의 성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다른 것보다 1장과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핵심 특징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탄생부터 시작하여 어린 시절 예수의 삶의 주요 움직임은 구약의 주요 본문을 성취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제 매튜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이 그의 복음서 전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사건이 구약의 예언 본문의 성취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마태는 이 이야기에 망아지와 당나귀를 모두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사건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이야기에 대한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을 비교하고, 마태가 그것을 편집한 방식과 그것을 어떻게 배열하고 자신의 이야기에 활용했는지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마태의 신학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의지. 이는 누가와 마가가 이 사건과 당나귀와 새끼를 포함하여 구약성서의 예언적 성취를 강조하려는 것 이상으로 이 이야기가 스가랴 9-9장 본문과 일치하고 그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또 다른 예는 마태나 누가가 반드시 서로 의존한다는 것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특히 둘 다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뒤에 숨겨진 공통 이야기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중에

마태와 누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기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한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출현,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성인 생활로 바로 뛰어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모두 잘 알려진 크리스마스 이야기인 예수 탄생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 이야기들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에서는 발견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 비록 이전 장들, 특히 누가복음 1장에서는 구약에 대한 구체적인 암시와 언급을 찾을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우리가 이미 1장과 2장에서 보았듯이 예수의 생애, 그의 어린 시절, 그의 탄생과 어린 시절, 그 주변의 사건과 움직임이 모두 구약성서 본문의 성취로 보여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마태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방문한 일을 예수님이 태어난 지 1년 또는 거의 2년 후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박사들이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마구간에 계시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실제로 소년이라고 불리며, 동방 박사들은 더 이상 마구간이 아닌 이 집에서 그를 찾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은 아마도 누가복음 2장의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내용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적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동방 박사에게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안은 그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목자를 대신하기 위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발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건이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마태와 누가는 단순히 그들이 기록하는 내용과 사건을 기록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선택하여 그들의 주요 신학적 의도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강조하고 예수의 왕족 지위를 강조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첫 장에서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연결하는 긴 족보를 사용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특히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왕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매우 왕실의 대접을 받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왕 헤롯 왕은 굳이 뒷문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귀인들이 꽤 먼 길에서 와서 예수님을 방문 하고 금과 유향이라는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왕족과 같은 중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전형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왕이 예수를 왕이자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더욱이 마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실제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마태는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의 족보라고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이방인들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매튜는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마태가 하고 있는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신약에서 구약의 사용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야기에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마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서 받는 왕실의 영접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편집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겸손한 사람이 더 많은 반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매우 굴욕적이고 겸손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복음서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 저자가 자신의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볼 때 이것이 편집 비평의 중요한 특징인 누가가 책 전체에 걸쳐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패턴 중 하나는 예수님이 결국 구원자가 되어 종종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부유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세금 징수원과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붙잡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께서는 역겨운 사마리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병에 걸린 나병환자와 같은 사람들을 만지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회의 역겨운 소외된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누가복음 버전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이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예수님을 역겨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함으로써, 아마도 동물을 키웠던 집의 기댈 곳과 같았을 것입니다. 먹이통, 구유와 같은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고, 목자들이 와서 아마도 사회 경제적 토tem 기둥에서 가장 낮은 예수를 방문함으로써, 누가는 그의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과 일관되게 예수를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으로 묘사하려고 합니다. 매우 미천한 출신이고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그들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명확하게

구성했으며, 그들의 신학적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편집하고 정리하고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동일한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이 두 복음서를 검토함으로써 두 복음서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두 저자의 신학적 의도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저자가 자신의 작업에서 채택한 입증 가능한 출처나 형식에 의존하거나 두 저자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 글을 쓸 때 서로 어떻게 다른지 묻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저자의 신학적 의도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지. 다시 말하지만, 결국 편집비평은 저자가 특정 부분을 어떻게 편집했는지에 대해 도출한 결론이 앞으로 진행될 것처럼 보이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음서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테스트되어야 합니다. 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흥미로운 점은 편집 비평이 실제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복음서 전체와 그 내용을 살펴보는 작곡 비평으로 알려진 또 다른 비평으로 자리를 내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그러므로 편집비평은 저자가 자신의 신학적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자료를 각색하고 배열하고 편집한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저자의 신학적 의도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집

비평은 부정적인 전제를 버릴 때 이전에 일부 편집 비평 실무자들이 저자가 자신의 출처에 변경 사항을 도입하거나 신학적으로 전달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저자가 관심이 없었음에 틀림없다고 말한 또 다른 비평 방법입니다. 역사 속.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가정에서 벗어나면 편집비평은 우리가 본문의 신학적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편집비평에 대한 논의는 형식과 자료비평에서 했던 것보다 저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본문을 추적하고 자료와 형식을 복구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자가 이제 그러한 형식과 출처를 취하여 텍스트로 정리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편집비평은 저자에게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저자의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더 넓은 범위의 역사비평 아래로 들어가 작가의 의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작가 중심의 해석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비평의 일부는 텍스트를 생산한 작가, 즉 텍스트를 쓴 작가입니다. 따라서 저자의 의도는 문서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된 대로 이 텍스트를 작성하고 작성하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밝히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논의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보냈지만 간단히 다시 소개할 작가의 의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주요 인물 중 하나는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입니다. 그는 일종의 계몽주의의 산물이지만 이에

반응했습니다. 인간 이성과 과학적 발견의 힘을 강조한 단지 합리주의적인 해석 접근 방식 인 Schleiermacher는 성경 본문을 해석 할 때 저자와의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즉, Schleiermacher에 따르면 해석의 목표는 작가의 과거 행위를 회복하고 실제로 작가의 마음 속에 자신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작가와 공감하고 동일시하며 작가의 진정한 의도를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Schleiermacher에 따르면 저자의 의도는 주로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경 해석에 관한 강좌나 교과서에서 해석자가 저자의 입장에 서거나 저자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때때로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이해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Schleiermacher의 접근 방식, 특히 작가의 의도를 밝히기 위한 그의 심리학적 접근 방식과 거리를 두겠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작가의 의도를 해석의 중요한 단계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그것은 해석의 주요 목표로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의 해석학 및 대부분의 성경 해석 유형 교과서에서는 궁극적으로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합니다. 텍스트의 올바른 의미는 저자가 전달하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 이것은 소수의 해석학이나 성경 해석 교과서에서 인용한 일련의 인용문입니다.

교과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러분께 맛을 드리기 위해 여러 교과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상당히 최근의 것 입니다. 이것들은 고대 작품이 아닙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2000년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적어도 개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교과서에 따르면 저자나 편집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러한 용어에서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자가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주석은 말씀을 원래의 수신자가 들었던 그대로 들으려는 시도입니다.

성경 말씀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 설명이 저자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의도된 의미가 텍스트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본문의 의미는 저자가 의식적으로 말하려고 의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수많은 성경 해석이나 해석학 교과서가 제안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본문이든

신약성서 본문이든 본문의 올바른 의미는 인간 저자가 원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전달하려고 의도했던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석의 목표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이를 밝혀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자가 텍스트를 생산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작가는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나? 그렇다면 목표는 동시대의 독자가 이 텍스트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역사적 작가가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해석학 교과서에서는 건전한 방법과 적용 규칙, 또는 건전한 방법과 해석 규칙을 적용하여 의도한 의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가가 소통을 시도하고, 소통을 의도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는 왜 저자의 의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입니다. 해석을 달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목표로 보입니까?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질문을 제기해 보세요. 저자의 의도에 대한 이의는 무엇입니까? 해석의 주요 목표로서 저자의 의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해석에 있어 여전히 타당한 목표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우선 작가의 의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 목표로 여겨졌는가? 저자의 의도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했는데,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텍스트는 작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작가들은 소통하기 위해 글을 쓴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쓰고, 이해되기 위해 글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서의 저자들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저자들의 산물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므로 작가의 의도를 밝히는 것은 가치 있고 타당하며 필요한 목표이다.

그래서 텍스트는 그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자는 실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혼동을 주거나 잘못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글을 쓰지 않습니다. 또는 일부 작성자가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고 잘못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일반적으로 이해받기 위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석의 목표는 저자가 어떤 의미를 의도했는가이다. 일부 사람들이 저자의 의도를 성경 해석에 있어 그토록 중요한 노력으로 간주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저자의 의도가 상충되는 해석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텍스트의 올바른 해석은 저자가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된 모든 의미 중에서, 특히 상충되는 의미가 저자의 의도에 맞는 해석인 경우

선호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와 조금 관련된 세 번째는 저자의 의도가 의미를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미는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의미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석이 날뛰는 것, 자유분방한 것, 뭐든지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해석은 저자가 의도한 대로 제한됩니다. 작가의 의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에서 곡과 마곡의 전투에 관해 읽었을 때, 우리는 그 전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그 용어들은 저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바에 기초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저자의 의도인데, 이는 좀 더 넓게 해석과 관련되지만, 해석에 있어서 저자의 의도는 좋은 신학의 기초로 여겨진다. 따라서 텍스트의 올바른 해석은 저자의 의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는 신학적 성찰과 공식화의 기초입니다. 즉, 신학은 좋은 주석에 달려 있는데, 이는 저자의 의도에 근거한 본문의 안정된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우리가 영감받은 성경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면, 저자가 의도한 의미, 즉 인간 저자와 신적 저자 모두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사소통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면, 본문에는 내가 접근하고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의미와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들이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은 저자의 의도가 목표로서 타당하다는 점과 인간 저자의 의도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반대 주장은 자멸적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즉,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없거나 저자의 의도가 불필요하거나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기사와 책을 이해하려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 기사를 읽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전달하려는 내 의도를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해석의 목적은 작가가 의도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작가는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전한 해석 원칙의 적용을 통해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더 넓은 맥락, 단어의 의미 등을 살펴보고 이 모든 것을 저자와 그의 작품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저자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나면 다음 질문은 '왜 일부 사람들은 저자의 의도를 거부했습니까?'입니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는 여전히 유효한 해석의 목표인가? 우리는 다음 세션에서 그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